



새한조경 신방리 농장



유명수
(새한조경 대표)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 신화

이름없는 작은 조경회사의 말단 종업원에서 맨손으로 일어난 조경업계의 신증인.

한 푼의 재산도 한 평의 땅도 물려받은 것 없고 남다른 기술이나 조경을 전공한 것도 아닌 아무런 기반도 없으면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30여 년간 조경업에 종사하며 조경수협회 충북지부장을 10년간이나 역임 하

였고 현재 2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매년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조경수업계의 입지전적 인물인 유명수 사장의 새한조경을 찾았다.

유명수 사장은 충북에서도 산골 오지인 괴산군 괴산읍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집안의 3남1녀중 둘째로 1953년에 태어나 농촌에서 성장한 후 1976년에

당시 청주시내에 있던 성림원이라고 하는 조경회사에 취업한 것이 지금의 조경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말단직원으로 조경 공사장에 따라다니면서 늘 만나고 접하는 것이 조경수 농장과 재배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조경업의 전망과 재배법을 전해듣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산업화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조경수 생산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청주인근의 남의 땅 5,000평을 임대하여 당시 인기있던 조경수종인 단풍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묘목을 선택, 수고 150cm정도 되는 대묘를 구입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조경수가 출하되던 1981년부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 사무실도 직원도 없이 다방에 앉아서 하는(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른바 졸대기 장사부터 시작 하였었다.

성실과 신용만이 살길

타고난 성품이 워낙 순진하고 성실함 때문인가,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뛰어 들었지만 있는 그대로 조금도 속이거나 꾸밈이 없이 성실하게 시공하고 납품하고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욕심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한번 거래했던 곳에서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고 그분들에 의해서 인근에 자연히 알려지고, 처음부터 무슨 경영이니 홍보니 하는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은 알지도 생각도 못하였지만 오직 성실과 신용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매년 수주 실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대재벌인 쌍룡엔지니어링의 인천, 부산, 대구 등 각처의 이파트 공사장에 매년 대량으로 조경수를 납품하는 계기가 돌아오고, 아울러 LG그룹 전신인 금성계전의 대규모 청주공장 신축현장의 조경공사를 도맡아 시행하는 등 초창기부터 당시 아무런 공사면허도 없는 상태였지만 청주지역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며, 시작한지 4년만인 1984년도에 직원 2명을 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지금의 새한조경이라는 상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산간오지나 자투리땅에 심겨진 나무들

새한조경의 조경수재배 포지는 20ha(6만평)나 되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장소가 한 두 곳이 아닌 청주시 외곽 동서남북에 그야말로 천지사방 20여 곳에 흩어져 있어 단순히 한번 둘러만 보는데도 하루에는 어렵도 없고 2~3일은 걸려야 되는 그런 실정 이란다.



전의면 유천리 칠길엿 농장



전의면 반정리 도로변 농장



청원군 내수면 산간오지 농장

자기 명의로 된 조경업 면허를 갖겠다는 일념으로 공사 면허에 필요한 면적을 채워 나무만 심겠다는 생각에 누구나 그렇게 많은 땅을 구입 할 때는 당연히 재테크 등 부동산 가치나 개발전망이 어떻고 하며 여러가지를 따져 보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조경수 재배만 생각하여 남들이 꺼리는 개발가치 없는 지역 땅, 경운기나 겨우 갈 수 있는 산간오지 다락논이나 도로변 또는 철길 옆에 길고 좁은 자투리땅등 주로 값이 싸고 거래도 안되는 땅들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다보니 사방에 분산 될 수 밖에... 어느곳은 일년에 한 두번 가보면 다행이고 어떤 곳은 한 번도 못 가본다. 금번 필자를 안내하면서도 길을 헤맨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래도 외따로 떨어진 작은 땅이라도 어느 하나 허술하게 방치한 곳이 없다. 한 평의 땅도 남김없이 토질에 맞는 수종들을 심어 잘 관리되고 있었다. 유명수 사장은 그야말로 우직하리 만치 나무를 심을 욕심뿐 부동산 가치는 생각도 않았단다.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 종류의 나무를 끌고루 심은 덕에 많은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적합한 나무를 요긴하게 조달하여 이제까지 조경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흐뭇해 한다.

부동산 사기로 날아간 집단화의 꿈

천성이 순박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온 그는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한 것이 어처구니없는 토지사기를 당하게 되

었다.

새한조경의 포지는 하나같이 멀리 외지에 떨어진 작은 면적들이라 때마침 충북 청원군의 남이면 수대리에 있는 임야 1만평이 매물로 나와 청주시내에서 가까운 곳이고 도로변에 접한지역이 마음에 들어 집단화시켜보려는 생각만으로 당시(20년전)만해도 나이도 젊고 더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관계로 쉽게 속았다. 누가 보아도 그저 순박하고 착하게만 보이니까 사기를 친 것인가... 도로변 완만한 산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산 것이 실제로는 산간 오지 급경사 땅이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전문사기꾼인 산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았자 찾을 길이 없고 할 수 없이 급경사 땅이라도 조경수들을 심었지만 정이 가지않아 방치 상태로 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심은 신수유, 주목, 스트로브 잣나무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지만 이 지역에 큰 농장을 세워보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전에는 인부 구하기도 수월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덜 했지만 지금같은 인력난에는 길바닥에 소비하는 손실이 너무 많아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부나마 흠어진 것을 합쳐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나마 넓은 포지였던 괴산군 지역에 있던 1만평 농장이 군부대 용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지금 한겨울에도 나무를 옮겨 심느라 집단화는커녕 오히려 분산이나 시키고 있으니, 역시 “나는 사방팔방 뛰어다닐 팔자인가보다.” 라고 해맑게 웃는다.



부동산 사기당한 청원군 수대리 농장



신방리 농장의 왕벚나무



신방리 농장의 오염송



신방리 농장의 산철쭉



신방리 농장의 주목



신방리 농장의 향나무

새한조경의 보물 창고 신방리 농장

“천안 아래 전의” 보통 사람들이 이곳을 이야기 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냥 “전의”하면 어디를 아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행정 구역 명칭인 충남 연기군 전의면 하는 것 보다 천안 아래 있는 전의로 더 잘 알려진 이곳,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나란히 지나는 전의면 소재지부터 서쪽으로 약3~4km 가는길이 온통 크고 작은 조경수 농원으로 꽉 들어찬 조경수 집단재배 마을이다. 해마다 3월이면 60여 농가 80만 헥타(24만평)에서 재배한 각종 조경수들을 전시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수 판매 축제가 열리는 곳 길 옆 양편으로는 조경수 고장답게 크고 작은 농원 간판들이 마치 축제장의 홍보용 포스터처럼 수 없이 늘어선 조경수 마을인 전의면 신방리 라는 곳의 야트막한 산자락에 새한조경의 신방리 농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 신방리 농장은 청주에서 1시간 거리가 되는곳으로 지방 도로에서 폭 20여 미터가 되는 하천 건너편

에 위치한 북향으로 된 야트막한 산과 산아래 평편한 밭으로 이루어진 새한조경 농장중 유일하게 한군데 집단으로 된 8ha(24,000평)의 큰 농장이지만 작은 골짜기가 가려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산속으로 들어가보니 역시 20년간이나 가꾸어온 농장이라 짜임새가 있다. 우선 작업도구가 산의 지형을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사방으로 잘 닦여져 있고 그 도로를 따라 왕벚나무와 이팝나무가 멋진 가로수를 이루며 침엽수인 향나무, 반송, 오염송, 스트로브 잣나무, 주목들이 집단으로 심겨진 사이사이로 단풍나무, 복자기, 목련, 느티나무 등 많은 수종들이 빈곳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봄이면 각종 꽃들이 장관을 이룬다 한다. 산아래 밭에는 산철쭉과 주목 등 단기 출하용 조경수가 한밭 가득 잘 가꾸어져 적합한 토지 활용으로 장기수와 단기수가 조화로운 농장이다.

1988년도 처음으로 내 땅을 장만하였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그야말로 멋진 조경수 농장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정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심고 가꾸어 처음에는 수종별, 규격별로 조화를 이루어 참으로 보기 좋고 흐뭇할 수가 없더라.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던가, 나무가 좀 크면 캐어 팔아먹고 그 빈자리에는 같은 수종을 심지 못하고 그때마다 유행하는 다른 수종을 심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지금은 수십 종이 혼재되어 있는 그야말로 만물상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초창기에 심어진 20년 된 조경수들 특히 노각나무, 이팝나무, 복자기, 오엽송, 왕벚나무들은 전국 어디다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일품조경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팔라고 하여도 팔지 않는 귀한 나무가 되었으며, 조경공사때 마다 요긴하게 빼어다 쓰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중의 보물창고란다.

판매 보다는 조경공사에 더 치중하다보니 농장에 굳이 간판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아 이제까지 단 하나의 간판도 세워보지 않았단다.

그래도 이곳처럼 크고 멋진 농장에는 간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별로 자랑 할 것도 없는 것을 공연히 허세나 부리는 것 같아 세우지 않았단다.

역시 천성이 순박한 성품 그대로다.



청원군 남이면 가석장

대형 수목 굴취 이식에 성공

유명수 사장은 조경공사업 면허 없이 주로 산림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을 하다가 1994년도에 조경식재 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가지 면허를 취득하고 2000년도에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를 취득 4가지의 공사면허를 가지고 크고 작은 많은 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며 1994년 면허 취득 후 곧바로 대형 조경수목 이식에 빛을 발하기 시작 하였다.

1995년 충북 청주시 북쪽 지역인 청원군 오창면에 조성한 280만여 평의 대단위 과학산업단지조성 공사장 관내 산지에 흩어진 자연생 수목중에서 조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대형목 4,000여주를 굴취 이식하여 80%이상의 활착을 성공함으로써 맨 주먹으로 시작한 새한조경 유명수 사장을 일약 대형 조경수 이식의 일인자로 떠오르게 하였으며 이후 청주시 솔밭공원 조경공사, 미동산 맨발숲길공사, 산림환경연구소 생태관 조경공사등 정부발주 공사는 물론 각종 아파트나 주택 건설시 크고 작은 많은 조경공사를 시공함



청원군 북이면 농장

간판 없는 조경수 농장

요사이는 자기 PR시대라고 하던가 더구나 이곳 전 의면 일대는 조경수 농장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렇게 큰 농장에 아무런 간판이 없다. 이곳뿐만 아니라 대도시인 청주 농장에도 역시 조그만 간판하나 없다. 원인은 간단했다. 천성이 순박하고 어디 나서서 자랑 하는 성질이 아닌데다 이제까지 30년 동안 조경수를 재배하였지만 모두 조경 공사에 납품하거나 직접 시공하는데 이용하고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았으니까 자연히 간판도 전시 판매장도 없다. 조경수 생산

은 물론 청주 시가지의 주요 로터리나 도로변 자투리땅에 조성된 소나무 숲은 거의가 새한조경 유명수 사장이 2000년도 초에 시공한 것으로 청주시의 명물이 되어 지금도 멋진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한다.

충북 지부장 10년 협회 발전과 사회봉사에 헌신

유명수 사장은 조경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1990년에 우리 조경수협회에 가입하였지만 가입 초기부터 헌신적인 활동으로 조경인들의 신임을 얻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충북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당초 20명이던 회원을 45명으로 배 이상 확충, 협회 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회원사간 유대 강화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일본에 선진조경 견학은 물론 겨울철 농한기마다 회원들을 이끌고 전국의 유명한 농장이나 연구소 등을 찾아가는 순회견학을 실행하여 회원들의 기술과 지식향상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로 끈끈한 정을 이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지금도 매년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회원 상호간의 조경수 유통 알선과 친목 도모에 앞장서므로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조경인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돕기 단체인 국제 키피탄 클럽 청주지역 회장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맡아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돕기에 남모르게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 청주 흥덕구 지회장, 로터리클럽 부지부장, 소년소녀 가장 돕기지원 등 각종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해마다 봄철이면 청주시와 충북지역 일원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수목 1,000주 정도를 기증하여 조경인 가족들과 함께 식목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 국토 녹화와 조경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유명수 사장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까지 성실하고 정직함 그대로 맨주먹으로 일어난 조경인답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부인 박민섭(51세)여사와의 사이에 2자녀를 둔 다복한 조경 가족으로 앞으로 흠어진 농장을 집단화시켜 관광 및 학습 농장을 마련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 계층과 어린이들은 물론 누구나 함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농원을 꾸미고자 가족 모두가 합심 노력해 가고 있다. 🌳

전의면 신방리 농장전경

